

스페인 바로크 '문학 아카데미' 연구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이 만 희

단독/한국외국어대학교

Lee, Man-Hee(2008), Estudio de las academias literarias españolas en el Barroco -en torno a su estructura y características-, *Revista Iberoamericana*, 19-2, pp. 71-90.

Las academias literarias españolas se formaron por la influencia de la academia moderna italiana sobre la base de la tradición literaria medieval. Florecieron en la época barroca, que fue el Siglo de Oro de la literatura española en sentido estricto. Las sociedades literarias de entonces fueron tan populares que casi todos los escritores participaron activamente como miembros. Con el fin de mantener las reuniones, cada academia redactó sus reglamentos y aplicó severas sanciones a los académicos que las infringían. Las academias celebraron a veces certámenes, en los cuales se hacían 'vejámenes' al final de las reuniones criticando a los poetas y al mismo tiempo sus obras. Esto provocó efectos de sorpresa e impacto en el público barroco. A lo largo del siglo XVII, como demostración del gusto barroco español, las academias literarias se empezaron a teatralizar con la inclusión de elementos parateatrales y musicales. En comparación con las academias italianas y las francesas, las españolas mostraron un fuerte conservadurismo al restringir la participación de las mujeres y aceptándolas sólo como parte del público. Sin embargo, las tertulias españolas crearon un ambiente libre e igualitario, imprescindible para la creación y la crítica literarias, a través del uso de los pseudónimos y el sistema de rotación de los cargos entre los académicos. Esto ayudó a la literatura española a consolidar la base literaria para cosechar los mejores frutos de su historia, aunque se viviera bajo la censura simbolizada por el Índice y la Inquisición de la Contrarreforma española.

[academia literaria / estética barroca / Siglo de Oro / literatura española;
문학 아카데미 / 바로크 미학 / 황금세기 / 스페인 문학]

I. 서 언

스페인 문학사상 바로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던 문학 창작력으로 말미암아 스페인 문학의 절정기를 구가하였다. 15세기 국토회복전쟁과 16세기 아메리카 식민 사업에 투입되었던 국가적 에너지가 17세기에 이르러 놀라운만한 문학적 열정으로 분출되어, 스페인 문학은 명실상부한 황금세기를 구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성과는 당시 스페인 주요 도시에서 꽃피웠던 ‘문학 아카데미(academia literaria)’¹⁾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아카데미란 용어는 18세기 중반부터 ‘왕립 언어 아카데미(Real Academia Española)’와 같은 공적 기관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 이전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호세 산체스(José Sánchez)는 문학 아카데미를 “여가 시간에 문예 작품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릴 목적으로 문학 창작에 몰두하는 지인들 중심으로 만든 사적인 모임”(Sánchez, 1961: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여가 시간의 무료를 달랜다

-
- 1) 스페인 사회에서 동호회라는 명칭은 주로 ‘페르톨리아(tertulia)’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구에 회자되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대화와 놀이, 기타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기 위한 친구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1726년에서 1739년 사이에 출판된 『모범사전 *Diccionario de Autoridades*』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전은 첫 번째 의미로 “어떤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분별력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정의하고, 둘째로 “대화와 놀이와 여러 가지 건전한 오락을 위한 친구나 가족들의 모임”으로, 마지막으로 “마드리드 연극장에서 모든 좌석보다 높은 극장 윗층의 정면 입구에 이어진 회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4세기부터 1726년까지의 어휘를 담고 있는 니에또 히메네스(Lidio Nieto Jiménez)의 『새 스페인어 사전 *Nuevo tesoro lexicográfico del español*(S. XIV-1726)』에서도 페르톨리아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이 어휘가 갖는 의미로 ‘아카데미(academia)’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전은 아카데미란 용어를 지금의 페르톨리아란 의미로 처음 등재한 사전이 1611년에 발간된 꼬바루비아스(Sebastián de Covarrubias Orozco)의 『까스피야어 사전 *Tesoro de la lengua castellana o española*』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18세기 스페인 부르봉 왕조의 영향으로, 프랑스어의 연구와 언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한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모방하여 1714년 ‘왕립 언어 아카데미’라는 공적이고 국가적인 아카데미가 등장하면서, 사적 모임을 지칭하던 아카데미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스페인 지성계는 17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페르톨리아란 어휘로 이전의 아카데미란 용어를 대체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17세기 중반에 통용되기 시작해서 18세기 초중반부터 사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페르톨리아란 용어 이전에는 주로 아카데미란 용어가 페르톨리아가 갖는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소극적 기능 외에, 시나 산문, 희곡과 같은 작품들의 발표와 문예 비평 활동을 통하여 당대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을 배태한 요람²⁾이 되었던 것이다.

스페인 근대 아카데미는 멀리는 중세 이베리아 지역의 문학 회합의 전통과, 가깝게는 밀라노와 나폴리 부왕령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던 이탈리아 아카데미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황금세기 스페인 문학계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던 문화 현상이었다. 이 시기의 아카데미는 귀족들의 대저택이 회합의 중심지가 되어, 명성이 높은 문학가들과 문학을 후원하고 애호하는 귀족들이 회원이 되어 자신들의 문학 작품을 발표하고 활발한 비평 작업을 하는 공간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문인들이 참가했던 이 아카데미는 그들에게 문학 발표의 장이었던 동시에 그들의 문학을 버리는 단련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런 문학 아카데미는 스페인의 정치·경제가 침체와 쇠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16세기 말부터 스페인의 각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바로크 시대의 두드러진 문학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황금세기 문학의 융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문학 아카데미에 주목하고, 스페인 문학이 만개하는 바로크 시기에 스페인 문학 동호회의 형태로 자리잡은 스페인 문학 아카데미의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 2) 스페인 바로크 시대 아카데미 가운데 하나인 '마드리드 아카데미(Academia de Madrid)'의 회원 명단만 보더라도, 문학 아카데미의 활동이 당대 문학에 끼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607년에 문을 열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아카데미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로페 데 베가(Lope de Vega), 티르소 데 몰리나(Tirso de Molina), 케베도(Francisco de Quevedo), 콩고라(Luis de Góngora), 칼데론 델 라 بار카(Calderón de la Barca), 보강헬(Gabriel Bocángel), 미라 데 메스쿠아(Mira de Mescua), 기엔 데 가스뜨로(Guillén de Castro), 벨레스 데 게바라(Vélez de Guevara), 알라르콘(Juan Ruiz de Alarcón), 엔시소(Jiménez de Enciso), 가스파르 데 아빌라(Gaspar de Avila), 디에고 데 비에가스(Diego de Villegas), 로드리고 데 에레라(Rodrigo de Herrera), 루이스 데 베나벤테(Luis de Benavente), 로페스 데 사라페(López de Zárate), 발디비에소(Joseph de Valdivielso), 살라스 바르바디요(Salas Barbadillo), 크리스토팔 데 메사(Cristóbal de Mesa), 바르가스 마추카(Pedro de Vargas Machuca), 에르킬라체 공(Príncipe de Esquilache), 페르나르도 델 까스띠요(Felipe Bernardo del Castillo), 로페스 데 아길라르(Francisco López de Aguilar), 가브리엘 델 코랄(Gabriel del Corral), 프란시스코 데 멘도사(Francisco de Mendoza), 가브리엘 데 로아(Gabriel de Roa), 페레스 데 몬탈반(Pérez de Montalbán), 호세 데 비야이산(José de Villazán), 우르마다 데 멘도사(Antonio Hurtado de Mendoza), 페이세르 데 살라스(José Pellicer de Salas y Tovar), 후안 데 안도시아(Juan de Andosilla), 레오나르도 데 아르헨솔라(Bartolomé Leonardo de Argensola), 키타나(Francisco de Quintana), 멘데스 데 로올라(Pedro Méndez de Loyola)(Sánchez, 1961: 52).

II. 아카데미의 진행

1. 주제 발표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학 아카데미 중의 하나가 발렌시아에서 1591년부터 회합을 갖기 시작한 ‘야행인들의 아카데미(Academia de los Nocturnos)’이다. 이 아카데미는 정기적인 회합을 가진 ‘일반 아카데미’³⁾로서, 매주 수요일에 모여, 산문으로 된 연설문을 발표한 후 소네트나 로만세, 옥타바(octava) 형태의 시 열 편을 낭송했다. 이 아카데미 회칙은 발표자의 발표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회칙 제 1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의 회원이라도 발표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품을 발표할 수 없고, 발표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발표 내용을 먼저 회장에게 제출하여 발표를 허락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표할 수 있다(Sánchez, 1961: 225).

이러한 발표가 끝나면, 다음 모임 때 발표할 주제에 대해 의논하고 회합을 마쳤다(Mas i Usó, 1996: 138). 일반적으로 회합은 밤에 이루어졌는데, 아카데미에 따라서 오후 시간에 모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사라고사의 대표적인 아카데미였던 ‘나태 해독 아카데미(Academia Pítima contra la Ociosidad)’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후 두시에 모여 한 시간 가량 회원들에

3) 스페인에서 아카데미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발전하였다. 그 하나는 중세 때 알폰소 10세와 후안 2세의 조정에 모였던 학자 그룹의 회합에서 시작하여 1714년 펠리페 5세가 만든 왕립 언어 아카데미와 같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아카데미와 함께, 황금세기 때 국가의 특별한 날에 임시로 열렸던 문학 경연으로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임시 아카데미(academias ocasionales)’이다. 이와 별개로 귀족들과 문인들로 이루어진 문학 동호인들이 창작 작품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비평하고 토론을 벌이던 사적인 성격의 ‘일반 아카데미(academias ordinarias)’가 존재했다. 이 아카데미는 보다 큰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모임으로서, 회원들에 의해 승인을 받은 회칙을 가지고 정기적인 회합을 하던 아카데미였다(Mas i Usó, 1996: 3). 임시 아카데미는 문학 경연장으로서, 시제(詩題)를 제시하고 평가와 시상까지 하는 축제의 일종이었다. 단 한 번의 집회로 이루어진 아카데미로서, 국가적인 축제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 가지 주제만을 취급하였다(Mas i Usó, 1996: 138).

게 미리 부과된 작품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Sánchez, 1961: 255). 1700년에 시작한 '발렌시아 아카데미(Academia Valenciana)'는 기본적인 이 형식에 주제 또는 문제점 제시, 논평, 그리고 해결책 제시와 같은 순서를 가미하기도 했다(Mas i Usó, 1996: 137).

1599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에 빠진 자들의 아카데미(Academia de los Adorantes)'⁴⁾는 마사마그렐(Masamagrella)과 파르날스(Farnals)의 영주였던 까를로스 보일(Carlos Boil, 1577-1617)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에 회합을 가졌는데, 회합의 순서는 회장인 보일이 발표하는 산문으로 된 연설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서기가 발표하는 회장에 대한 찬사에 이어, 회장에게 바쳐진 한 편의 소네트와 여러 편의 테르세토(terceto)가 두 명의 회원에 의해 발표되었다(Mas i Usó, 1999: 67).

보다 큰 명성과 권위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아카데미는 유명한 시인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를 원했고, 아카데미의 후원자는 이 사람을 각별히 대우했다. 심지어 이 특별한 회원에게 맞추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규정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Sánchez, 1961: 14).

그들이 다루었던 주제는 다양했는데, 예를 들어 '환멸 아카데미(Academia del Desengaño)'는 '아카데미의 설립'에 관한 주제를 비롯하여, '고독의 탁월성에 대하여', '사랑과 그 효과에 대하여', '질투와 그 효과에 대하여' 등이 시제로 제시되었다(Sánchez, 1961: 300). 아카데미의 주된 관심 분야는 문학이었지만, 때때로 주제는 문학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무기와 고고학, 그리고 미술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 베하멘

문학 아카데미의 또 다른 측면은 '베하멘(vejamen)'⁵⁾으로 이 부분은 시

4) 이 아카데미의 회장인 까를로스 보일은 메난드라(Menandra)와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진 자들의 아카데미'를 열 생각을 하였다. 이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시인들은 회장을 따라서 한 명의 흠모하는 여인을 정하고 그녀에게 열애의 시를 바치는 관습을 유지하였다(Mas i Usó, 1999: 67).

5) 마스 이 우소는 이 베하멘이 일회적 경연의 성격을 띤 '임시 아카데미'에만 있는 것이라고 했으나, 정기적인 회합을 가진 '일반 아카데미'에서도 행해졌다. 일례로 일반 아카데미

경연을 개최하였을 경우에 행해졌던 특별 순서였다. 이 말은 라틴어 ‘벡사멘(vexamen)’에서 왔는데,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한 사람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점을 드러내어 과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베하멘은 프로그램 맨 마지막 순서에 있었고, 아카데미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이루어진 유쾌하면서 쓰디 쓴 유머와 풍자가 넘쳐나는 시간이었다. 어느 누구도 베하멘의 대상에서 빠질 수 없었고 이는 경연의 수상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때 회원들의 인간적인 결점과 육체적 결점, 특징, 기질을 비롯하여 문체와 시작법, 그리고 문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비평의 장이 마련되었다. 베하멘이 가지는 익살스럽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시인들 중 가장 탁월한 사람이 이 순서를 주재하였다.

베하멘은 보통 산문으로 기록되었는데, 시에 대한 진지한 비평과 함께, 경연에 참가한 시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결함이나 외모 상의 결점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일으킨 때도 있었다. ‘부엔 레티로 아카데미(Academia del Buen Retiro)’에서 프란시스코 데 로하스(Francisco de Rojas)는 베하멘으로 몇몇의 시인들을 공격했는데, 공격당한 이들이 로하스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King, 1963: 92).

베하멘의 이러한 날카로운 공격성을 무디게 하기 위하여 아카데미는 이 순서를 꿈과 같은 허구적인 배경 속에서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많이 사용된 배경으로는 하데스나 달, 혹은 아폴로의 궁 등이 있었다(King, 1963: 92). 베하멘은 이러한 허구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베하멘을 수행하는 사람과 공격받는 시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적대감과 분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수사적이고 문학적인 허구의 구조물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시인들과 그들의 시, 또는 그들이 다루었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었다. 베하멘을 지탱하는 이런 가상적 허구의 구조물은 바

로 분류되는 ‘레모스 백작의 아카데미(Academia del Conde de Lemos)’의 기록을 보면,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호세 나바로(José Navarro)가 사라고사에서 1654년에 시집을 출간했는데, 그의 시집에는 이 아카데미에서 행해진 두 개의 베하멘이 수록되어 있다(Arco y Garay, 1934: 63). 게다가 17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외된 자들과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아카데미(Academia de los Desamparados-San Francisco Javier)’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아카데미도 정기 회합의 폐쇄성과 단조로움을 깨기 위하여 축제 성격의 시 경연을 열곤 했고,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Mas i Usó, 1996: 105).

로크의 연극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현실과의 거리를 떼어놓게 만드는 바로크 기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하멘이 아카데미의 구성 요소로 계속 남아 있게 된 것 역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즐겼던 바로크 시대 사람들의 취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3. 벌칙

아카데미가 회합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칙을 만들었다면, 이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회원들의 행동에 대한 벌칙 역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나태 해독 아카데미'의 회칙 10조를 보면, 우선 회원 가입 자체가 엄격하여 지체가 높거나 사회적 존경을 받는 귀족이 아닌 경우 입회가 불가능했다. 그만큼 모임이 폐쇄적이어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합 참석을 금지하고 있다(Sánchez, 1961: 254). 뿐만 아니라 일단 회원이 되어도 회합에 세 번 이상 결석하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Sánchez, 1961: 257).

'야행인들의 아카데미' 회칙 7조, 회원들의 아카데미 불참에 대하여 강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떤 회원도 수요일 밤에 이루어지는 전체 회합에 불참해서는 안되며,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회합에 빠질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합법적인 불참 사유라 해도 반드시 회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작품은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아카데미로 제출해야 한다(Mas i Usó, 1999: 61).

회칙에는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회칙 제정의 목적이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유지에 있었던 만큼 그 취지를 위협하는 불참자에 대한 벌칙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자들의 아카데미'는 세 번 이상의 불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중으로 참석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Mas i Usó, 1996: 61).

‘나태 해독 아카데미’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벌칙을 내렸는데, 1608년 6월 9일 첫 번째 모임에서 아카데미에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벌이 시작되었다. 첫 회합에서 펠리노(Felino)에게 벌이 주어졌는데 아카데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입회시켰다는 이유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시를 써서 용서를 구하도록 했다. 동일한 잘못에 대하여 서기인 안프리스소(Anfriso)에게는 ‘갈망자(el Deseoso)’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오만함과 무례를 기록하는 벌을 주었다(Sánchez, 1961: 259).

‘우에스카 아카데미(Academia de Huesca)’도 불참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태 해독 아카데미’처럼 회합에 결석하는 회원에 대해서 이 아카데미도 운문이나, 산문으로 다음 모임에서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리고 불참에 대한 이유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른 회원들에 대한 사죄를 비는 내용을 써야 했다(Sánchez, 1961: 264-265).

‘한가한 사람들의 아카데미(Academia Literaria de los Ociosos)’는 모임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도 산문으로 말할 수 없고, 운문으로 말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규정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Sánchez, 1961: 310).

4. 연극적 요소

아카데미의 설립자나 후원자 또는 참석자들의 재능에 따라 문학적인 요소 외에 다양한 예능적인 측면이 추가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세비아의 ‘후안 데 아르기호의 아카데미(Academia de Juan de Arguijo)’는 시인이자 음악가로서 많은 악기를 연주했던 아르기호의 취향이 아카데미에 반영되어 음악이 곁들여진 문학아카데미의 성격을 유지했다(Sánchez, 1961: 204).

나폴리에서 1611년에 문을 연 ‘한가한 사람들의 문학 아카데미’의 메세나는 1610년부터 1616년까지 나폴리 부왕을 지냈던 레모스 백작⁶⁾이었다.

6) 레모스 백작은 시인으로서 문인들과의 교류를 좋아했으며, 이들로부터 문학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로페 데 베가는 1621년에 출판한 『필로mena Filomena』에 삽입된 자신의 서간문에서 백작의 시작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백작은 또한 희곡에도 관심이 많았는

이 아카데미가 주목을 끄는 것은 연극 공연을 회합 중에 가졌다는 점이다. 이 아카데미의 몇몇 회합에 참가했던 에스뜨라다(Estrada) 공작이 이 모임의 활동에 대해 언급한 기록 중에는, 백작을 비롯한 회원들이 연극을 직접 공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작이 처음 아카데미에 참석했을 때 레모스 백작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 오르페우스가 그의 달콤한 리라 연주로 지옥의 문을 부수고, 플루톤으로부터 에우리디케를 구출하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다.

오르페우스 역은 재능 있고 익살스러운 아나야(Anaya) 대위가 맡았는데, 그는 기타로 음정이 맞지 않는 목소리로 숯불구이고기에 대한 노래를 불러댔다. 에우리디케 역은 에스페호(Espejo)가 맡았는데 그의 콧수염은 엄청나게 커서 귀에까지 닿을 정도였다. 치아가 다 빠진 노인인 비야에르모사(Villahermosa) 총장은 프로세피나 역을 맡았고, 서기 안토니오 델 라레도(Antonio de Laredo)는 플루톤을, 나는 오르페우스의 대사 역을 맡았다. 라레도는 재주가 매우 많아 다른 연극에서처럼 여러 가지 목소리를 흉내내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Sánchez, 1961: 306-307).

이밖에도 1681년에 시작된 '알까사르 아카데미(Academia del Alcázar)'는 칼데론 델 라 바르카의 죽음을 기리는 특별행사를 거행하였다(Mas i Usó, 1999: 224). 이 아카데미 역시 정기 회합에서 연극 공연을 시도한 아카데미였는데, 여러 편의 희곡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 가운데는 1681년에 공연된 메르카데르(Gaspar Mercader)의 사르수엘라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No puede haber dos que se amen』가 있고, 이듬해에 오르띠 몰레스(José Ortí Moles)의 희곡 『공기, 땅 그리고 바다는 불 Aire, tierra y mar son fuego』과 사이네페 한 편이 있다(Mas i Usó, 1999: 231-232). 오르띠 몰레스의 희곡 공연은 바다 속 괴물들의 등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물의 등장과 같은 화려한 17세기 바로크 연극의 특징들을 고

데, 나폴리에서 연극 한 편을 써서 채 로마 스페인 대사로 있었던 그의 동생 카스트로 백작(Conde de Castro)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편의 시들을 아카데미에서 발표했다(Sánchez, 1961: 304-305).

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공연은 깔데론의 사망과 함께 바로크 연극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한 동안 지속되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1690년에 문을 연 ‘소의받은 자들과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아카데미’도 정기 회합 외에 시 경연을 열었는데, 경연은 음악과 춤이 가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알까사르 아카데미’와 ‘수학 아카데미(Academia Matemática)’와 같은 17세기 말의 여러 아카데미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징이다(Mas i Usó, 1996: 105-106). 이제 문학 아카데미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듯 과학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수학, 천문학, 법학 그리고 역사에 대해 전담자(supertintente)를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연극, 그리고 시에 대한 책임자도 정해서 운영했다. 이들은 각각 과학과 관련한 주제를 맡았고, 연극과 시를 짓거나 노래를 작곡하였다.

마스 이 우소가(1996: 18) ‘사르수엘라화된 아카데미(academias azarueladas)’라고 지칭한 것처럼, 정기 회합이 갖는 문학적 성격의 모임 외에, 문학 축제의 성격을 띤 다양한 장이 이 아카데미를 통해 펼쳐졌던 것이다. 아카데미가 참석자들과 회원, 그리고 관객들을 위해 연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충격과 놀람, 구경거리를 제공하려는 바로크 미학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 스페인 아카데미의 성격

근대 아카데미의 기원은 이탈리아⁷⁾로 알려져 있다. 16세기에 이탈리아 주요 도시 중에서 아카데미를 갖지 않은 도시는 거의 없었으며, 기록에 따

7) 이탈리아의 첫 번째 근대 아카데미는 1442년경에 코지모 메디치(1389-1464)의 후원을 받아, 피치노(Marsilio Ficino)에 의해 운영된 피렌체의 아카데미이다. 피치노는 플라톤을 기념하여 자신의 회합을 ‘아카데미(Accademia)’라고 불렀으며, 그의 저택에서 자신의 친한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 중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빛낸 폴리지아노(Poliziano),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 로렌초 메디치 등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이후 처음으로 피치노의 저택을 일컫던 ‘아카데미’란 용어는 회원 간의 교육과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지칭하는 일반명사가 된 것이다(King, 1963: 12).

르면, 1725년에 이 나라에는 600여개의 아카데미가 있었다고 한다(Sánchez, 1961: 11).

이탈리아의 아카데미를 모방하여 스페인 황금세기 동안, 마드리드, 사라고사, 발렌시아, 우에스카 등의 스페인 주요 도시에서 유사한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 교육은 자극과 개성이 결여되었으며, 항상 엄격한 규율과 교육방식에 묶여 있었다. 반면, 문학 아카데미는 식자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었다. 따라서 아카데미는 예술과, 문학, 과학을 배양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마스 이 우소는(1996: 300)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직무 분담, 별명의 사용, 정기적인 회합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탈리아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아카데미가 발렌시아의 '야행인들의 아카데미'라고 소개하고, 이 지역의 이후 아카데미는 '야행인들의 아카데미'를 모델로 해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1. 순환 보직

마스 이 우소는(1996: 54-55) 스페인 아카데미가 이탈리아 영향을 받은 예로 아카데미 내의 직책에서 볼 수 있는 계서제를 들었다. 즉 직무는 당사자의 문화적 역량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에 의해 결정 난다는 것이다. 그는 '야행인들의 아카데미'의 회칙을 근거로, 이것이 스페인 바로크 사회의 계급 서열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고, 회장이 모임을 위하여 자신의 저택을 제공하고, 아카데미에서 다룰 주제 선택과 신입 회원 영입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마스 이 우소는(1999: 54) 바로크적 계서제가 아카데미 내에서 기능할 때, 자유로운 토양이 필수적인 문학 아카데미의 환경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하였고, 이는 결국 이 아카데미가 꿈꾼 문학적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스페인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계서제 대신 회원 상호 간의 평등 원리에 기초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갔다. '야행인들의 아카데미'의 회칙 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회원은 매주 수요일에 모이고, 다음 주 발표자를 미리 선정해야 한다. 발표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품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풍부한 학식과 교훈을 주는 것이라야 한다. 회원들에게 그의 재능에 맞는 과제를 나누어 주는데, 과제 부과 의 직무는 해당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은 가운데 회장이 맡는다(Sánchez, 1961: 224).(필자 강조)

마스 이 우소가 언급한 이 아카데미의 회장의 역할과 권한도 상명하달 식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평회원들과의 협의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이 회칙은 잘 보여주고 있다.

1610년에 시작된 우에스카의 ‘후안 아구스틴 델 라스파노사 아카데미(Academia de Juan Agustín de Lastanosa)’의 1611년 5월 19일자 기록에 따르면, 이전 회합에서 서기직을 맡았던 라스파노사(Lastanosa)가 회장으로 임명되어 그의 저택에서 회합을 가졌다(Arco y Gara, 1934: 64). 즉 회장직을 회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았다는 점과 동시에 회합 장소도 고정된 회장이나 후원자의 저택이 아니라, 회합 당시의 회장 저택에서 이루어졌다.

‘나태 해독 아카데미’의 회칙 6조와 16조를 살펴보면, 이 아카데미 역시 회장직을 회원들 사이에서 돌아가며 맡았고,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예비됐으며, 이 방법은 회장 부재 시 임시 회장을 선출할 때에도 적용되었다(Sánchez, 1961: 254-255). 게다가 이 모임의 회장은 연임이 금지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다(Sánchez, 1961: 257).

17세기 중반 아라곤 지방의 ‘안드라데 백작 아카데미(Academia del Conde de Andrade)’는 나폴리 부왕이었던 레모스 백작의 장남인 페르난데스 데 까스뜨로(Pedro Fernández de Castro)가 후원자였다. 이 아카데미 역시 후원자들이 모임을 주재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회합을 주재하였다. 즉 매번 모임 때마다 회장을 교대로 맡았던 것이다(Sánchez, 1961: 283).

마드리드 바깥 지역에서 ‘야행인들의 아카데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아카데미는 ‘존엄한 자들의 아카데미(Academia de los Augustos)’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갈망자들의 아카데미(Academia de los Anhelantes)’였다

(Arco y Garay, 1934: 62). 특히 아라곤 출신의 시인 아르헨솔라(Lupercio Leonardo de Argensola)가 참가하여 두 번에 걸쳐 연설을 발표한 것이 유명한데, 그의 연설에서 이 아카데미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내용은 그의 연설문 중에서 아카데미 내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목이다.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을 회장이라고, 기록을 맡은 사람을 서기로, 비평하는 사람을 심사관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며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직무 위임은 선거나 투표 대신 추천으로 결정하도록 하시오(Sánchez, 1961: 242).

아카데미 내에서 직책이 주는 계급적 의미를 무화시키고, 동등한 자격을 가진 회원들이 주어지는 직무를 담당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 황금세기, 특히 바로크 시대의 서열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문학 아카데미는 그 운영 방식에서 민주적인 측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폐쇄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창조하여, 문학 작품의 발표와 비평에 필수적인 토양을 제공하였다.

2. 별명 사용

‘야행인들의 아카데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제1조는 당시 반종교개혁기 스페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 문인들이 취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아카데미를 여는 첫 날, 모든 회원들이 모여 미사를 드리고, 깊은 신앙심으로 천주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이는 아카데미의 시작 때, 만물의 진정한 첫 짚이 되시는 천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Sánchez, 1961: 223).

이는 16세기 중반 트렌토 공의회 이후 스페인 사회 전반에 불어닥쳤던 반종교개혁의 바람이 문인들의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예라고 볼 수 있다. 입회 과정이 쉽지 않고 기록물의 보관이 엄격하게 회칙에 의해 통제되던 사적 형태의 문학 동호회에서, 회칙 1조가 가지는 보수성은 다소 낮설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밀 결사가 아닌 평범한 문학동호회로서 회칙이 노출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정치·종교 당국과 굳이 마찰을 야기할 의도가 없을 경우에 회칙 1조에 이러한 보수적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회칙 3조는 “아카데미의 이름에 따라 모든 회원은 별명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ánchez, 1961: 224), 이 규정에 따라 회장인 베르나르도(Bernardo)는 ‘침묵(Silencio)’이란 별명으로 불려졌고, 따레가(Francisco Tárrega)는 ‘공포(Miedo)’, 아카데미의 서기였던 데스플루헤스(Francisco Despluges)는 ‘방심(Descuido)’, 가스파르 아길라르(Gaspar Aguilar)는 ‘그림자(Sombra)’, 프레텔(Bernardo Pretel)은 ‘꿈(Sueño)’, 비알론(Gaspar de Villalón)은 ‘어두움(Tinieblas)’ 등으로 불려졌다(Sánchez, 1961: 223).

이와 같은 별명의 사용은 이탈리아 근대 아카데미의 관습으로 알려진 것인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주장이다. 이 관습은 이탈리아 아카데미 중에서 ‘로마 아카데미(Academia Romana)’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는데, 아카데미 회원들의 의심스러운 이단 활동에 대한 교황 바오로 2세의 추적으로부터 회원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한다(King, 1963: 12).

마스 이 우소 역시 별명 사용이 아카데미 내에서의 발언으로 인하여 정치·종교 당국으로 받게 될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모임 내부에서 언급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보복을 당한 회원들의 사례가 있었다.

별명의 사용은 선별된 회원이라는 소속감 이외에, 절대 왕정과 교회가 문제 삼는 것을 금지한 종교와 철학, 인물, 제도 상징들에 대하여 회원들이 비판하고 풍자할 때 저지를 수 있는 회원들의 실수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Mas i Usó, 1996: 56).

이러한 주장은 모임이 왕궁이라든가 시청사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는 별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저택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Mas i Usó, 1996: 61). 이처럼 별명의 사용은 반종교개혁기의 종교재판소의 서슬 앞에서 문인들과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어 수단으로 스페인에서 가능하였다.

별명의 사용은 결국 별명이란 준 익명성을 빌어 아카데미 내부에서 금기 시된 사안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비판과 풍자가 허용되도록 기여한 관습이었다. 이 점은 스페인 정치·종교 당국의 검열이 문학과 예술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할 때, 아카데미가 그 출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진보적 토론과 비판의 현장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별명은 교회와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와의 갈등 차단이라는 이유 외에도 문학 아카데미의 본질적인 활동과 관련한 이유가 존재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르코 이 가라이(Ricardo del Arco y Garay)가 아카데미의 회원들 사이에서 사용된 별명은 회합 중 회원 상호간의 확보되어야 할 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데서(1934: 64-65) 볼 수 있듯이, 별명의 사용은 회원 간의 동질성과 평등의 표현이기도 했다. 계서제가 지배하던 바로크 스페인 사회에서 별명은 신분상의 우열을 드러내지 않고 평등하게 회합이 진행되게 하는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3. 소극적인 여성의 역할

스페인 아카데미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탈리아 다른 스페인적인 특징을 내포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카데미를 남성 중심의 회합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아카데미도 초기에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트렌토 공의회 이후 아카데미의 성격이 바뀌면서, 이탈리아 아카데미는 더 이상 정치와 사상과 관련한 무거운 분위기의 토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윌러드 F. 킹(Willard F. King)은 이러한 변화가 반종교개혁이란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아카데미의 모임에 여성들의 출입을 허용하

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963: 15). 즉 16세기 후반으로 가면 서 이탈리아 아카데미는 당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탈피하면서, 여성의 출입을 대폭 허용하여 프랑스 살롱 문화와 유사한 사교적 측면이 강조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반면, 당시 스페인 사회는 아카데미 회원으로의 여성 영입을 기본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스페인 동부 지역의 몇몇 아카데미에서 청중으로 등장하는 수준이었다.

그 한 예가 1608년에 사라고사에 등장한 ‘나태 해독 아카데미’였다. 이 문학 동호회는 황금세기에 드물게 여성이 회원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당대 문학에 심취했던 에릴(Heril) 백작부인과 기메라(Guimerá) 백작부인이었다. 기메라 백작이 1608년 6월 9일에 프레스까노(Frescano)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이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해독제(Pítima)’란 용어는 ‘약덕의 어머니’, ‘미덕의 원수’, ‘착한 이들의 계모’(Sánchez, 1961, 252)인 나태로 인해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 나태와 안일을 제거하는 해독제를 자처하였다.

그러나 이 아카데미의 여성들은 18세기 프랑스의 살롱문화에서 볼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맡지는 못했으며, 아카데미의 회의록은 그들이 주로 별책을 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7월 30일자 회의록은 에릴 백작 부인은 별책으로 기메라 백작을 찬양하는 편지 한 통을 써야 했고, 그 이후에도 다른 별책으로 돈이나 보석으로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기메라 백작 부인 역시 그녀의 어머니와 똑같은 이유로 첫 경연 때 6레알이라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Sánchez, 1961: 259-260).

이 아카데미가 만든 회칙을 보면 회칙이 적용되는 주요 회원을 ‘남성(varones)’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모임의 중심은 남성들이었다(Sánchez, 1961: 253). 그러나 제정된 회칙을 이 부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동의와 서명을 구하고 있는 점(Sánchez, 1961: 258)은 외형적으로나마 이 백작부인들의 존재감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이다.

여성은 아카데미의 청중으로 초대되어 아카데미의 활동을 구경하는 소극적인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아카데미의 관심을 1698년의 ‘귀부인들에게 바치는 아카데미(Academia a las Señoras)’란 이름에서 볼 수

있지만, 아카데미 활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여성은 여전히 아카데미의 수동적 관객의 입장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렌시아란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17세기 후반기에는 아카데미에 부왕이나 귀족들, 특히 이들의 부인들을 청중으로 초청하였다(Mas i Usó, 1996: 71)는 기록을 보더라도, 스페인 아카데미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윌러드 F. 킹은(1963: 18) 프랑스 살롱 문화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살롱은 동일하게 이탈리아의 영향으로 출발하지만, 처음부터 여성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살롱문화의 경박성과 오락성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킹의 관점을 참고하면, 스페인 아카데미에 여성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살롱문화가 갖는 “경박성과 오락성”과는 구별된 진지한 문학적 논의가 스페인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스페인 바로크의 문학적 역량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IV. 결 어

스페인 문학 아카데미는 중세 이베리아 반도의 문학적 전통 위에 이탈리아 근대 아카데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16세기 말부터 본격화되어,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스페인 문학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바로크 시대 문학 아카데미는 스페인 각 도시의 귀족들의 저택에서 당대 문인들과 문학애호가들이 참가했던 보편화된 문화 현상이었다.

당시 문학 아카데미는 회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칙을 만들었고, 모임의 본질적인 측면이었던 회합 참석과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아카데미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였던 ‘베하멘’이 청중에게 놀람과 충격의 효과를 제공하고 문학 아카데미에 음악과 춤을 비롯한 연극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은 바로크 미학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부터 여성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의 살롱과 트렌토 공의회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여성을 영입한 이탈리아의 아카데미와 비교할 때, 스페인 바로크 문학 아카데미는 여성의 참여라는 부분에서는 강력한 보수성을 드러내었다. 예외적으로 후원자의 가족들이 여성 회원으로 영입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17세기 말을 향해 가면서 여성들에 대한 문호를 조금씩 개방해 가지만, 프랑스 살롱과 같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고, 다만 청중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당대 여성의 영입 문제는 토론 주제가 가벼워진다는 것과 오락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오히려 스페인 아카데미의 진지한 문학적 풍토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다.

스페인 문학 아카데미는 또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었던 이탈리아 아카데미의 형식을 따랐지만, 엄격한 계서제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회장과 회합 장소 순환제와 같은 스페인적인 자유로움이 반영되어 독특한 아카데미 문화를 만들어 갔다. 순환제 회장직과 별명의 사용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페인 문학 아카데미는 문학 작품 발표와 비평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유와 평등의 공간을 창조해 내는데 주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금서목록과 종교재판소로 대변되는 반종교개혁기 스페인의 사회 환경 속에서 스페인 문학이 최전성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문학적 토양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정복. 2003. 『살롱문화』. 서울: 살림.
- 오한진. 2000. 「유럽에 있어 초기 살롱문화 연구」. 《외국문학연구》, 6: 149-178.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 이병애. 2000. 「유럽살롱의 개념과 역사적 개관 -고대 그리스에서 바로크까지-」. 《괴테연구》, 12: 289-311. 한국괴테학회.
- 이종완. 2000. 『유럽의 살롱문화』. 공주: 공주대학교.
- 이회재. 2005. 「Somaize를 통한 17세기 살롱 여성들의 분석」. 《서양사학연구》, 12: 67-99.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장혜순. 2000. 「20세기의 살롱문화: 소수집단의 문학과 살롱」. 《카프카연구》, 8: 305-333. 한국카프카학회.
- 진일상. 2000. 「계몽주의 시대의 살롱문화」. 《괴테연구》, 12: 313-334. 한국괴테학회.
- 하버마스. 2002.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서울: 나남.
- 하이덴 린쉬. 1999. 『유럽의 살롱들』. 김종대·이기숙 역. 서울: 민음사.
- 한성자. 1999. 「괴테 시대의 살롱문화: 궁정문화에서 시민문화로」. 《괴테연구》, 11: 191-209. 한국괴테학회.
- Abellán, José Luis. 1981. *Historia crítica del pensamiento español. Del Barroco a la Ilustración(Siglos XVII y XVIII)*. Tomo III. Madrid: Espasa-Calpe.
- Arco y Garay, Ricardo del. 1934. *La erudición aragonesa en el siglo XVII en torno a Lastanosa*. Madrid: Imp. Góngora.
- Corominas, Joan. 1983. *Diccionario crítico etimológico castellano e hispánico*. Madrid: Gredos.
- Covarrubias Orozco, Sebastián de. 1994. *Tesoro de la lengua castellana o española*. Madrid: Castalia.
- Fernández Álavarez, Manuel. 1989. *La sociedad española en el Siglo de Oro*. Madrid: Gredos.
- Gibson, Carl. 1964. "Spanish Academies of the Golden Age." *BYU Studies*, 5(3): 1-12.
- Kamen, Henry. 1985. *Inquisition and Society in Spai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King, Willard F. 1963. *Prosa novellística y academias literarias en el siglo XVII*. Madrid: Real Academia Española.
- Mas i Usó, Pasqual. 1996. *Academias y justas literarias en la Valencia barroca*.

- teoría y práctica de una convención*. Kassel: Reichenberger.
- _____. 1999. *Academias valencianas del Barroco*. Kassel: Reichenberger.
- Nieto Jiménez, Lidio & Alvar Ezquerro, Manuel. 2007. *Nuevo tesoro lexicográfico del español(S. XIV-1726)*. Madrid: Arco / Libros.
- Ortega Muñoz, Arcadio. 2002. "Discurso en la inauguración de la academia: La academia de Buenas Letras de Granada en el mundo de las academias." Granada: La Gráfica.
- Pfandl, Ludwig. 1994. *Cultura y costumbre del pueblo español de los siglos XVI y XVII*. Madrid: Visor.
- Real Academia Española. 1979. *Diccionario de Autoridades*. Madrid: Gredos.
- Sánchez, José. 1961. *Academias literarias del Siglo de Oro español*. Madrid: Gredos.
- Vega, Lope de. 1989. *Epistolario de Lope de Vega Carpio*. Tomo III. Agustín González de Amezúa(ed.). Madrid: Real Academia Española.

성명: 이만희

주소: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금호아파트 101-915

E-mail: abemanheelee@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8년 09월 28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17일